

인 생 에 늦 은 때 는 없 더 라

광주일보 신춘문에 당선자들 40~60대에 이룬 '문청'의 꿈

중장년은 인생의 황금기다. 직장에서 은퇴를 했거나 퇴직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한편으로 삶의 연륜과 지혜가 빛나는 시기다. 이들은 대부분 '밥벌이'로서의 인생 1막을 마치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출발선에서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인생에 있어 늦은 때란 없다. '늦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100세 시대, 중장년은 무엇이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세대다. 먹고 사는 일에 치여 잠시 꿈을 유예하거나 잊었더라도 꿈틀거리는 열망까지 버릴 수는 없다. 그러기에 중장년의 유쾌한 도전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더욱이 코로나 나로 지친 이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기쁨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도전은 잔잔한 감동을 준다.

2022광주일보 신춘문에 부문별 당선자도 모두 40대 후반에서 60대 중장년이 뽑혀 화제다. 소설 박정수(63·V 난청), 동화 황경란(51·동물 환상극), 시 강희정(49·조퇴) 작가는 오랫동안 꿈을 포기하지 않은 덕에 마침내 '신춘의 문'을 열게 됐다. 이들에게 글쓰기는 새해 벽두를 여는 희망의 문이 된 셈이다.

"나이 60을 넘기면서부터 등단에 대한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유명 신인상 몇 군데에 응모했지만 매번 떨어졌어요. 이렇다가 끝나는 것은 아닐까? 그 때문인지 지난해에는 예년보다 훨씬 더 노력했습니다."(박정수)

"20, 30대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많습니 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전하고 실패하는 동안의 불안을 어떻게



소설 박정수 시 강희정 동화 황경란

"많은 체험과 상상력 작품 속에 스며들어
꼼꼼히 읽었던 신문이 창작에 도움 돼
무엇이든 간절하면 문은 열리기 마련이죠"

감내하느냐 일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인내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젊지 않지 않을까 싶네요. (황경란)

"물론 나이가 많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많기에 삶의 체험이 다양한 형태로 시에 스며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간접 혹은 직접 경험과 상상력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이지요."(강희정)

박 작가는 청소년 시절의 꿈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글을 쓰는 작가'였다. 그러나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이과계열의 안정된 직장을 택했다. 전남대 통계학과 교수인 그는 마흔이 넘어 하고 싶은 것을 하려 소설 창작반에 들어갔다.

그러나 감동적인 글을 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아니, 소설

은 허구이며 현실은 냉엄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그럼에도 그는 "어릴 적 생각은 늙지도 않는지, 자꾸 나를 잡아당겼다"며 "삶에서 이루지 못한 회한을 이야기 속에서 어루만지고 주눅들었다"고 말했다.

황 작가는 20년 넘게 해운회사에서 근무를 했다.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며 항상 '나를 위한 시간'을 쪼갰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전업작가를 꿈꾸며 퇴사를 결심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소속감이 사라진 채 글을 쓰는 지금의 시간도 여전히 불안하다"며 "그러나 이 불안이 스스로를 깨어 있게 만들고 글을 쓰게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황 작가에게는 직장생활을 하며 꼼꼼히 읽었던 신문이 창작에 도움이 됐다. 신문을 오리고 붙이며 그 안에서 소재를 많이 찾을 수 있었던 것. 무엇보다 신문을 읽다보니 "사회적 문제나 내 생각도 자리를 잡아가는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

강 시인은 오랫동안 혼자 습작기를 보냈다. 어딘가에 응모를 하고 문학에 도전하기 위해서가 아닌 '스스로에 대한 만족'이 이유였다. 용기가 생겨 처음 문을 두드린 곳이 화순의 '첫눈 시냇기반'이었다. 그곳에서 동인들을 만난 건 무엇보다 큰 행운이었다. 그는 "문학의 세계를 몰랐는데 어떤 용기가 숨어 있었는지, 돌아와보니 그 용기 덕분에 지금에 이른 것 같다"며 "시작은 생각만으로는 할 수 없고 일단 발과 몸을 움직여야 튀듯 성취할 수 있다는 평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창작의 출발선에 선 3명의 작가들은 나이 들어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이든 간절하면 언제든 문은 열리기 마련이다. 대학 교수로 학생을 가르치는 박 작가의 말은 한 번쯤 새겨들어야 한다. "무엇이든 5년 이상 정진하는 끈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트 사람은 젊은 친구들보다 여러 모로 느릴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박정수 기자 skypark@kwangju.co.kr

"용기와 헌신 잊지 않겠다" ... 소방관들 희생에 대선 주자들 애도 물결

경기도 평택 소방관 3명 순직

경기도 평택 화재 진화 중 순직한 소방관들의 희생이 대선 정국에 큰 울림을 남기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시대와 미래를 위한 헌신보다는 네거티브와 포퓰리즘 공방에 매몰된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시선이 따갑다는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대선 주자들은 이날 소방관들의 순직 소식에 잇따라 추모 메시지를 내놓으며 애도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6일 경기도 평택 화재 진화 중 실종된 소방관 3명이 순직했다는 소식을 듣고 추모의 메시지를 남기고 이날 오후 비공개 일정을 취소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잘 알기에 너무도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마음이 무너진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충분한 안전조치 마련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가장 확실한 애도는 더 이상의 희생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그간의 사고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근



"20대 대선 아름답게 치르자" 6일 오후 광주시 서구 평화공원에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60일 여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본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상과 순직에 대해

서는 충분한 예우와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순직 소식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몸을 사리

지 않고 헌신적인 구조 활동을 벌이다 순직하신 소방관 세 분의 소식에 가슴이 메인다"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무안국제공항 진입로 4차로 확장 7일 개통

접근성 향상·물류비 절감 기대

무안국제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무안국제공항 진입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가 마무리돼 7일 전면 개통한다. 무안국제공항 진입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는 지방도 815호선으로 무안 청계면 상마리 청계삼거리에서 망운면 피서리 무안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8.12km 구간이다. 도비 945억원을 들여 2010년 6월 착공 후 11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기존 도로 구간은 농기계와 공사차량 등 이용이 잦은 구간으로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행도 구불구불해 평소 사고 발생 위험은 물론 교통 불편이 큰 구간이었다. 그동안 목포 등 서남권 주민들은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기 위해 목포IC를 기점으로 15km가량 멀고, 약 4분 이상 더 소요되며 통행료 지급 등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도 이용 대신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하지만 이번 진입도로가 왕복 4차로로 바뀌면서 고속도로 이용 시보다 10여 분 단축돼 서남권 주민들의 무안국제공항 접근성 향상은 물론, 현재 조성 중인 항공특화산업단지의 물류수송 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안국제공항 진입도로 4차로 확포장 공사가 완공돼 공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 등 국토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가는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위드 코로나 시대 국제선 운항 재개 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장거리 국제노선 취항을 위한 활주로 연장(2800m→3160m)과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한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주차장 증설 등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방 14개 공항 중 최초로 공항과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법원 판결에 요동치는 지방 정치 ▶6면

북스 - '빛살무늬토기의 비밀' ▶14·15면



KIA 김중국 감독 "올해는 타이거즈의 해" ▶18면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영문대학교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EQS
THIS IS FOR YOU.

EQS
This is for you.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과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원동대로 516(수환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원동대로 603(번갈 20(소문동))
수환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원동대로 520(수환동)

정부 공인 표준 정비 및 등급
· EQS 450+ AMG Line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3.8 | 도상 : 3.8, 고속도로 : 3.7 | 1회 충전거리(km) : 478,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107.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면보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용할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